

고령화사회, 불교 노인복지 어디까지 왔나

복지시설 수적 증가...인력·프로그램 부족

UN에서 65세 이상 노인 연령층 비율이 전체 인구의 7%를 차지하는 사회를 고령화사회, 14%를 넘으면 고령사회라고 규정되고 있다.

작년에 우리나라는 이미 노인 인구가 337만명(7.1%)으로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고, 2022년엔 고령사회(14%)가 될 것이라는 것이 통계청의 전망이다. 노인 인구는 급증하고 있지만, 사회복지제도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대다수 노인들이 빈곤, 질병, 역할상실, 고독이라는 4중고(四重苦)에 시달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핵가족, 가족해체 현상 등으로 노인부양은 이제 더이상 전통적인 효사상에 기댄 수 없게 된 만큼 국민연금의 재원확충, 의료 및 요양시설의 확대 등을 통해 사회전체가 노인부양을 분담하는 시스템을 확립해야 한다고 입을 모아 있다.

최근 불교계에서도 효사상을 중시해온 종교단체 시급히 노인관련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하다. 2일 제5회 '노인의 날'을 맞아 불교 노인복지의 현황과 과제를 알아본다.

■ 불교노인복지 현황 불교사회복지정보센터와 <한국불교총람>에 수록되어 있는

427개의 불교사회복지 시설을 분석하면 아동·청소년 시설이 약 47.3%로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은 노인(23%), 지역주민(16%), 장애인(9%)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조사시설 중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98개이다. 가톨릭의 85곳 보다는 많지만 대한예수교장로회가 밝히고 있는 개신교회 3백50여곳에 비하면 수적으로 열세다. 98개 시설 중 입소시설(양로원, 실버타운, 요양원, 그룹홈 등)과 이용시설(노인복지관, 노인회관, 주간 및 단기보호센터, 노인상담기관, 경로당, 노인대학, 무료병원, 무료식당 등)이 각각 49개로 같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중 양로원이 34.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무료병원이 11.2%, 무료식당이 10.2%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록상 가장 먼저 설립된 불교 노인복지 시설은 1952년 설립된 부산의 정화양로원이다. 1957년 제주양로원, 1961년 대구 화성양로원이 그 뒤를 이었다. 불교계 양로시설의 개설은 비교적 연대별로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으나, 1980년대 이후 설립된 시

설이 반을 넘고 있다.

이중 불교계의 노인복지사업을 이끌어 온 단체는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과 '인덕원'을 들 수 있다.

1989년 설립된 연꽃마을(이사장 각현스님)에서는 무료양로원과 무료병원 등 24개 시설을 운영하면서 취업을 위한 교육훈련과 재가서비스도 제공해 불교노인복지사업에 두각을 나타내었다.

1994년 법인을 설립한 인덕원(이사장 성운스님)은 96년 인덕노인복지회관을 준공하고 99년 서울시립 은평노인종합복지관을 수탁, 치매노인단기보호소 및 주간보호소 등 재가노인복지센터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밖에 조계사가 서울시노인복지센터, 진각복지회가 성북노인종합복지관을 위탁운영하는 것을 비롯 속초 신흥사, 김천 직지사, 김제 금산사, 서울 영화사, 수원 포교당, 남해 화방사, 여수 석천사 등이 지역 노인복지시설을 위탁운영하거나 시설 수탁을 준비중이다.

불교 노인복지시설은 시설 미비나 전문인력 및 프로그램 부족 등 많은 한계를 안

사찰마다 노인복지공간 확대

'스님 노후보장제' 서둘러야

연꽃마을·인덕원 등 모범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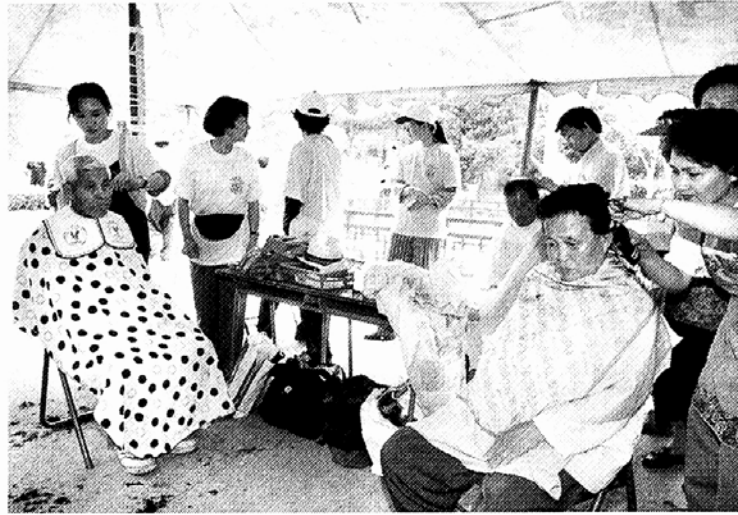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노인인구 중 불교인구가 월등히 높은 점을 고려할 때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 불교노인복지 과제

불교노인복지지는 불교사회복지 전반에 걸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사안들과 마찬가지로 스님 및 신도들의 인식 부족, 교단의 지원(제도, 시설투자, 전문인력, 자원봉사자(후원자) 부족 등 개선해야 할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 스님 노후보장=우선 시급한 일이 문중없고 상좌없는 스님들을 위한 노후보장제도 확립이다. 평생을 정진과 고행으로 일관한 스님들에게 최소한의 수행공간을 마련해 드리는 일은 이제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기존의 선방가운데 빈집하지 않은 곳을 택하여 노스님들의 공간으로 활용하는 일이 필요하다. 교구본사급 전통사찰에서는 의무적으로 노스님들의 공간을 마련하고 돌봐드리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 불교 터미널 케어 활성화=요양에서 무덤까지 책임지는 불교가 되기 위해서는 임종 간호와 장례 서비스의 활성화가 절실



노년층 신도가 많은 불교는 또한 노인복지를 준비해야 하는 사명과 책임이 있다. 사진은 탑골공원에 서어르신 무료이·미용 봉사에서 나온 불자 자원봉사자들.

하다. 사회복지학 박사인 선우스님은 한국 불교에서 종합적인 불교 터미널 케어를 위한 과제로 △통일된 '불교 터미널 케어'의 정립과 그 이념의 지지 △종교를 떠난 입종 간호 △납골당 설치 등 묘지문제 해결에 나설 것 △호스피스 상조회 등의 조직과 네트워크 △교단의 지도력 등을 제시했다.

▶ 종단의 지원=이웃 종교는 전 수입액의 45%까지 사회복지사업에 투자하는 교단도 있음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적어도 교구본사 예산의 10%, 총무원 예산의 20% 이상은 사회복지사업비로 책정하여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프로그램 개발=인덕원 이사장 성운스님은 "불교사상을 바탕으로 한 노인프로그램이 현재 거의 없다"며 "사찰이 노인들이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는 노인복지관, 노인대학, 노인그룹홈이나 열매당, 경로식당, 노인무료의료소, 역사탐방방 등을 운영하거나 사찰의 환경정리 및 미화작업이나 채전 가꾸기 등에 노인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 사찰을 노인복지 공간으로=사찰이 수행처라는 종교적 기능을 훼손시키지 않으면서도 복지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담보할 경우 불교노인복지의 총량이 크게 증가할 것은 물론 사찰이 지역사회 노인복지 자원의 하나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연꽃마을 이사장 각현스님은 "전국의 사찰이 '효의 사회화 운동'을 실천하는 중심축이 되어야 한다"며 "마을마다 양로원 노인주간보호소, 노인무료병원, 경로식당, 노인대학 등을 설치 운영해 '사회적 효, 국가적 효'를 실현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jkgm@budhapia.com

◆ 주요 불교 노인복지시설

Table with 2 columns: 시설명 (Facility Name) and 연락처 (Contact Info). Lists various Buddhist welfare facilities across different regions like Seoul, Gyeonggi, and Jeju.

사·부·대·중

천년고찰의 영화

입전예 모 집지에서 경북 의성 월소동 초등학교 교정 한구석 절창 속에 감춰 계신 석조비로자나불 좌상 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 이 부처님은 경북 유형문화재 제176호로 지정돼 있는 성보이다. 그런데 언제부 터인가 사람이 베사



도각스님 <동국대 강사, 불교사>

되면서 부처님은 우여곡절 끝에 이곳 초등학교로 옮겨졌고, 다시 이교도들의 무차별 파괴를 염려하여 철창으로 보호각을 만들었다 한다. 제대로 모셔지지 못하고 초등학교 교정에 방치되다시피 한 부처님 생각을 하니 안타까운 마음이다. 전국 곳곳에 많은 폐사지가 있고 또 성보가 어처구니 없는 만큼 방치된 상태로 놓여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것을 제행무상의 법칙이라 했던가, 폐사지도, 부처님도 온 민족이 불국정토를 바라본 사람들 그 소원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면서 세웠던 것이리라. 세월이 흐르면서 의식이 달라지고 삶의 방식에도 변화가 오면서 사찰을 쳐들 세우며 국대민안과 불국정토를 기원했던 사람들의 송고한 뜻도 점차

잊혀져 가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세월이 흐른다고 해도 이들의 아름다운 뜻은 유물과 함께 남아있고, 또 지금도 그 뜻을 면면히 이어오고 있는 우리들이 있지 않은가. 우리 나라 곳곳에는 새로운 불사를 일으키는 곳이 많다.

그러나 유서깊은 폐사지를 복원하거나, 방치되고 있는 성보를 다시 살리는 일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요즘은 어느 때보다 우리 문화재에 대한 관심이 높다. 그에 관한 관리와 정보들이 한 창구로 결집될 필요성이 절실하다. 즉 전담 부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이다. 그냥 관심정도만 흘러버릴 일이 아니다.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러한 일이 시간이 걸리는 일이라면 먼저 각 민중이 불국정토를 바라본 사람들 그 소원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면서 세웠던 것이리라. 세월이 흐르면서 의식이 달라지고 삶의 방식에도 변화가 오면서 사찰을 쳐들 세우며 국대민안과 불국정토를 기원했던 사람들의 송고한 뜻도 점차

목탁소리

김재경 (취재1부 기자)

천일정진하는 정토회

1분 1초도 쉬지 않고 이어진 참회기도, 한 주도 거르지 않고 진행된 통일교육, 식량난에 처한 북한 주민들을 돕기 위한 통일복지 지원 사업 등등.

정토회(지도법사 범륜스님) 산하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위한 24시간 1000일 정진 특별위원회'가 지난 해 3월 1일 24시간 정진을 시작 한지 600일(10월 21일)을 맞아 그동안의 활동을 돌아보고, 남은 400일을 내다보는 기념행사를 갖는다. 13일(토)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정토회관에서 열리는 '24시간 1000일 정진 600일째 워크숍 및 통일 한마당' 행사다.

정토회의 이번 24시간 철야정진은 민족 구성원이 야기한 공업(供業)에 대한 참회와 굶주리는 북한 주민에 대한 자비심, 남과 북이 하나되기 위한 통일교육 등으로 불교 통일운동사상 각별한 의미를 던져

준 결사이다. 그간의 통일운동이 격렬한 투쟁 지향의 이념논쟁과 시위가 주였다면 정토회의 이번 결사는 너와 내가 하나되는 화합과 동체대비의 소박한 통일운동이란 점에서 오히려 신선한 충격이 되고 있다. 통일운동을 비롯한 그간의 불교 시민운동은 장기적인 계획아래 일관성 있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지 못한 감이 적지 않다. 원대한 슬로건 아래 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열정적으로 출발은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예산 및 인력, 후원 부족 등으로 흐지부지 되고 가는 것이 다반사였다. 심지어 일부 단체는 언론을 의식한 보여주기식 일회성 행사 위주로 단체를 운영하기도 해 내실있는 불교시민운동의 역량이 축적되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정토회의 이번 정진이 불교시민운동의 불교적 이념과 실천의 방향을 반추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건강의천연가슴황토달마



우주 달마의 기(氣) 자연 황토의 기(氣) 마음 청정의 기(氣) 성수로 달마의 전신을 적시면서 기도로서 합쳐졌을 때 사악한 기운을 추방하고 불길한 운세를 흡수하여 행운과 재운과 건강을 불러주는 황토로 빛은 달마입니다. (실물크기 300x200x150)

- 이런분께 권합니다
- 수험생 자녀
- 두신 분
- 집중력이 떨어지는 분
- 마음먹은 일이 잘 안되는 분
- 나쁜 꿈에 시달리는 분
- 이유없이 시름시름 아픈 분
- 부부 정이 떨어지는 분
- 사업이 잘 풀리지 않는 분

대구·경북 보급본부(달마 및 대리점문의) 080-5858-080

"빛 한번 보지 못한 채 죽어간 어린 수자령을 해탈시켜 드립니다."



부모와 인연은 맺어졌지만 어둠 속에서 빛도 한번 보지 못한채 죽을 수 밖에 없었던 작은 생명들을 위해 나무 본존 지장 보살의 원력으로 천도제를 올리고자 합니다. 우리 주위에 맹목하고 있는 태아의 생명들... 그 생명들이 지금 아베 엄마를 애타게 찾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영혼이라 우리들은 쉽게 무시하고 있었습디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을 보십시오. 밖에서 이리저리 방황하는 아이들, 부모들의 원인 모를 병환, 여기저기 무너져 가는 사업체들... 이런 현실은 우리가 합부로 버린 생명들의 저항입니다. 쉽게 버렸던 생명들을 이제는 감싸안아야 할 때입니다.

이 생명들의 환을 믿어주시고 현재 우리의 자식처럼 사랑하시어 좋은 세계(부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핏덩어리 채로 죽어간 모든 생명에 다같이 참회하여 평생을 찾아줍니다.

선망 부모 천도제 상담
천도제 비용은 한 명당 3만원(웃, 과자, 우유)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 4동 648-5호
전화 053)957-9551, 954-9129
팩스 053)957-9551
휴대폰 011)398-9807

성불사 법장 합장

운세 30초 이내 적중(명리학)

공개감정(실전 30초)월요일~금요일 16~18시 전화상담 전문인 양성(기초가 된분은 누구나 가능) 교재.. 사주첩경(이석영 저자) 격국(60여종) 용신 명리학에 대한 질문. 30초이내 답변 역학연구 15년 전화상담 경력 5년째 0600-0500 태극운세 1:1 상담 1월실적 전체 1위 1700여명 상담 시간 227시간 현재는 통장입금 상담 중 서울은행 24304-3396114 김진동 명리학으로 성의 체형, 얼굴형, 색맹, 한쪽 다리가 길다 짧다 허리가 가늘다 오리 궁둥이다 코에 점, 입술의 모양 등 신기한 이론입니다. 특히 태어난 시간을 확실히 찾아 줍니다.

위치 7호선 장승백역역 3번 출구 100미터 전방 육교 옆 종로 약국 골목 입구 100미터 진입 거북당 근처
전화 02-822-0595 011-498-5067 051-758-3427
명리연구인 김진동

명상과 음악이 만나는 (마음고요 선방)

작은 음악회

매달 정목스님의 진행으로 열리는 작은 음악회가 10월 20일 토요일 저녁 8시에 있습니다.

영화 '아웃 오브 아프리카'의 테마 음악을 클라리넷 연주로 감상하는 시월의 음악회는 명상과 음악, 가을을 테마로 한 시들을 감상하게 됩니다.

장소: 강남 신사동 4거리 지하철 3호선 신사역 5번출구, 마음고요 선방
참가대상: 누구나도 빈손으로 오시면 됩니다.
전화: 02) 548-0218
E-mail: maumgoyo@hanmail.net